

“전통사찰 중첩규제 해결책 필요”

조계종·정각회, 11일 ‘불교규제 법령 개정 공청회’ 개최

#. 서울 강남의 대표적 사찰인 봉은사. 등
 묵된 신도만 20만 명이고, 하루 사찰을 방문
 하는 신도만 1만 명에 이른다. 하지만 신도
 1000명 이상 법회를 볼 수 있는 신행공간이
 없다. 가장 큰 법당루조차 최대 500여명 밖
 에 수용할 수 없다. 특히 하루 평균 300명이
 넘게 외국인인 방문하지만 전통불교문화를
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
 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법 등의 규
 제로 신도회 건물 등 총 19개소 약 520평이
 불법으로 낙인찍혔다. 벌금도 2500만원 물
 였다. 관할관청은 봉은사를 도시근린공원으
 로 지정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 한 번
 도 관리 지원을 한 적 없다. 도시공원법으로
 규제하면서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관리하
 지 않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.

#. 국제선원으로 유명한 서울 강북의 화
 계사. 푸른 눈의 남자들이 뜨거운 구도열을
 토해내고 있다. 불법(佛法)을 찾기 위해 세계
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그들이 불법(佛法) 건
 물에서 용맹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
 이는 많지 않다.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
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때문이다. 화계사는
 1970년대에 연면적 183평을 전통사찰로 지



하루 300명 이상 찾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울 봉은사 외국인 안내소 중첩 규제 때문에 기건물로 지정되어 있다.

정받았다. 3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화계
 사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. 대적광전
 314평, 보화루 외 90평 등 총 404평이 시대
 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 규제로 묶여있는 것
 이다. 강제이행금 5억원, 변상금 1억5000만
 원도 물어야 한다.

전통사찰들이 각종 중첩 규제로 몸살을
 앓고 있다. 서울 은평구 진산사, 종로구 승가

사, 서초구 대성사, 고양시 흥곡사 등 주로
 도심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여기에 해당된
 다. 현재 사찰의 건축제한을 규제하고 있는
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
 한 특별조치법, 도시공원법, 자연공원법, 전
 통사찰보존법 등 10여 가지.

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총
 무원과 중앙총회, 국회 정각회는 ‘불교 규제

법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’를 6월 11일 오후 2
 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.

이영호 의원(열린우리당)과 주호영 의원
 (한나라당)이 1·2부 사회를 맡으며 김상겸
 교수(동국대 법학과)가 ‘전통문화 계승의 의
 무와 국가의 역할’, 박희승 조계종 총무원
 기획차장이 ‘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
 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’, 정태용 법제처
 행정심판관리국장이 ‘외국의 그린벨트 제
 도’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.

한편 정종복 의원(한나라당)은 개발제한
 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증·개축 규제
 완화를 뼈대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
 국회에 제출했다.

총 24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△전통
 사찰 주지스님이 관련법에 따라 시·도지사
 의 허가를 받은 경우 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
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의 행위 허가를
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△
 기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내지의 범위를
 대폭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.

정종복 의원은 “현행 전통사찰에 대한 정
 부정책은 이중삼중의 규제정책만 있었지,
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올바른 보존
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”이라고 지적
 했다.

남동우 기자 dwnam@buddhapia.com



마애불이 새겨진 암석의 표면은 땅에 파묻힌 상태다.

통일신라 시대 추정 마애불 발견

경주 남산 열암곡 인근서... 610cm 높이 암석에 조각

‘야외박물관’이라 불릴 만큼 수
 많은 석보(聖寶)를 품에 안고 있는
 경주 남산에서 통일신라 때 제작된
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마애불상이
 발견됐다.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
 (소장 지병목)는 열암곡 인근의 발
 굴조사를 진행하던 중, 5월 22일 인
 위적인 조각이 새겨진 암석 하나를
 발견했다. 높이 610cm에 무게만 70
 70여 톤에 달하는 암석은 옆어진
 채였고 한 면에 돌을 새김으로 마애
 불이 조각돼 있었다.

5월 31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
 살펴본 마애불은 흉을 파낸 암석의
 남쪽 면으로 대좌와 왼쪽 다리, 가슴,
 어깨, 손의 일부와 U자형의 옷
 주름들을 드러냈다.

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
 마애불의 제작 연대를 9세기로 추
 정하고 있으나 땅에 파묻힌 불상의

머리 부분의 조사 이후 정확한 시
 기를 발표할 예정이다.

지병목 소장은 “1천년 이상을 땅
 속에 묻혀 있어 풍화의 영향을 받지
 않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”고
 말했다. 우홍준 문화재청장은 “하
 나의 독립된 바위에 새겨진 불상 중
 이렇게 큰 것은 처음 본다”고 소감을
 밝혔다.

문제는 옆어진 마애불을 세우는
 일, 무게가 70톤에 달하는 데다 마
 애불이 종성비의 집근이 어려운 산
 비탈에 있고, 헬기를 동원하기도
 쉽지 않은 여건이다. 유 청장은 “전
 문가의 의견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
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정은우 교수
 (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)는 “이런
 마애불의 발견으로 대형 마애불 연
 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”
 이라고 전망했다. 경주=하성미 기자

I Love Buddha / 실천하는 수행
 몽정운(www.zentoon.com)

‘현대불교’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: 006-01-0785-361 국민은행 (예금주 (주)에이치비엠씨)

선 무도
 선체조/선요가/선호흡/선기공/선무술

선무도 전국지점
 서울 02)763-2960
 부산 02)341-4889
 대구 053)225-0718
 인천 031)475-2800
 대전 042)725-0669
 광주 061)276-6271
 울산 052)276-6271
 서울 051)424-1380
 수원 031)915-9322
 서울 051)619-0166

USA, LA 213-487-5377
 Canada Toronto 941-659-9642
 Austria Salzburg 06725-5384
 France Toulouse 05-61-09-1010

보이차 紅茶園
 진년보이차 · 진품자사호 · 직수입
 02-744-3311
 www.hongdawn.com

하한거 결제 범위 ▶ 4면

부처님오신날, Y보살은 큰 짐을
 벗었다. 10년 동안 가슴에 묵직하
 게 얹혀있던 짐을 내려놓으니 극
 락이 따로 없다.

Y보살은 10년 전 대구의 한 사
 찰에서 조직된 관음회 회장이었
 다.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불심으
 로 뭉쳐진 관음회는 서로 마음을
 터놓고 지내는 즐거운
 단체였다. 회원들끼리
 서로 신행을 독려하고
 사찰 일에도 주인의식
 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임했다. 그
 러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회
 가 해체되고 말았다. 관음회가 해
 체되고 나니 형제 같은 도반들과
 도 거리가 생겼다. “인연이 여기까
 지라면 어쩔 수 없지...”라는 마음
 으로 아쉬움을 달랬다.

그런데 회장을 맡았던 Y보살에
 게는 고인이 생겼다. 회비정신을
 못했기 때문이다. 다시 회를 재건
 하고 싶은 생각과 이런저런 사정
 이 겹치면서 피일차일 하게 됐다.
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거나 일
 관적으로 공직할 수 있는 방법도
 막연했다.
 가슴에 응어리처럼 담겨진 회비
 95만원. Y보살은 이 돈을 가슴에
 묻고 10년을 살았다. 더러는 잊혀
 지고 더러는 생각하기를 거듭하면
 서... 그래서 늘 불평했고 죄책감마
 저 갖지 않을 수 없었다.

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
 아 Y보살은 결심했다. 이제 관음회
 가 다시 결성될 가능성도 없고 옛
 도반들을 일일이 만날 수도 없는
 일. 당시에 남았던 회비에 자신의
 ‘죄값’을 얹어 좋은 일에
 쓰기로 했다.

Y보살은 현대불교신문
 이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
 주최 하는 ‘새싹불자를 키움시대’
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고 종립학
 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후원금으로
 200만원을 내놓았다. 불기2551년
 부처님오신날은 Y보살이 10년 묵
 은 짐을 벗은 날이 됐다.

임연태 기자

법현 스님의 새 책
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

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

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‘옛거울’을 찾아라

법현 스님 저
 신국판 양장본 / 416쪽 / 값 15,000원
 현대불교신문사 발행

법현 스님 저
 신국판 양장본 / 416쪽 / 값 15,000원
 현대불교신문사 발행

법현 스님 저
 신국판 양장본 / 416쪽 / 값 15,000원
 현대불교신문사 발행